

대안상영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부터 듣고 싶다

김남훈(이하 남훈) | 초기에는 관객보다 생산자에 대한 고민이 더 컸다. 대안배급의 방식을 고민하며 시작했는데, 그러자면 대안상영이 존재해야 하겠더라. 대안적으로 상영하는 공간이 더 많아져야 대안배급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안상영이라는 게 극장이 아닌 공간에서 상영을 하는 거니까, 극장이 아닌 곳에서 영화를 본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굳이 사람들이 극장이 아닌 곳에서 대안적인 방식으로 영화를 보려고 할까 싶었다. 그래서 다채로운 재미를 줄 수 있는 대안상영을 자체적으로 기획해 봤다. 그게 랩톱영화제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안적인 상영회와 대안적인 배급망을 만드는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1회 랩톱영화제의 '컴퓨터는 극장이다'란 슬로건이 인상적이었다.

남훈 | 영화의 생산자인 감독들에게 상영 기회를 다각적으로 만들어 주고 싶었다. 당시 상상했던 그림은 버스킹과 플라마켓을 합쳐 놓은 거였다. 100여 명의 감독이 직접 랩톱을 들고 놀이터 같은 데 나와서 자기 영화를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보는 그런 모습. 그런 막연한 상상을 실험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6명의 감독을 선정하고, 이를 동안 감독들이 랩톱을 가져와 자기 영화 3~4편을 트는 영화제를 연 거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7월까지 두 달에 한 번 꼴로 총 다섯 번 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왔나?

남훈 | 선유도공원에서 했을 때 관객이 하루 100명 가까이 와서 통계를 내 봤는데,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이었다. 거의 학생들이었고, 여성과 남성 비율이 6:4 정도였다. 문래동에서 했을 때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70대 어른이 한 분 오셨다. 그분 소개로 손녀가 다음 날 영화제에 왔다가, 그 뒤 청년기획단에 들어왔고 조합원이 됐다. 지금 여기 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랩톱영화제를 했던데?

남훈 | 당시에 상영회 중심의 지역 협동조합을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서 전체를 네트워킹하는 일종의 협동조합 연합회 방식으로 콘텐츠를 배급하는 모델을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름의 청년 풀이



모극장 김남훈 상임이사, 김선미 공동체(상영)배급 프로그래머

있다고 생각했던 부산과 전주에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고, 랩톱영화제를 부산에서 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그런데 지역에 모극장 같은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 완전히 실패했다. 지역의 문화 기획자들이 지닌 문제의식이 서울과 많이 달라서, 쉽게 되는 일이 아니더라. 그래도 그때 공정무역영화제나 '모극장@스페이스노아' 같은 상영회도 하고, '늘씨네'라는 공간도 만들었으니 나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모극장@스페이스노아 상영회가 '시[SEE]:사회'로 바뀐 걸로 알고 있다. 주로 사회적 이슈를 다룬 영화들이 상영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하게 됐나?

남훈 | 영화를 보는 이유에는 유희과 여가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들도 있을 거다. 그래서 재미있는 것보다도 영화를 매개로 사회적 문제들을 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 연대하는 공간의 성격과 특성을 반영한 상영회를 해 보고 싶어서 기획한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2003년 여름부터 스페이스노아에서 시작했는데, 거기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디디는 청년들이 주로 모여 교류하는 공간이니까, 그런 면을 고려해서 매달 주제를 선정하고 영화를 골랐다. 그러다 올여름에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오면서 성격이 약간 바뀌었다. 여기는 서울시가 위탁한 중간지원 조직이고, 관련 정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정보 순환을 중요하게 보고, 실무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

모두를 위한 영화도서관 '늘씨네'가 만들어진 과정도 궁금하다.

남훈 | 2013년에 늘장이 처음 생겼을 때, 그쪽에서 영화 상영회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왔다. 늘장이 비닐하우스라 영화를 상영하긴 힘든 조건이라서 한동안 망설였는데, 조합원이 늘면서 아지트나 편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다면 상영회도 하고





DVD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더라. 그래서 늘씨네를 만들었는데, 사실 영화와 관련 없는 대관 수입이 제일 많다.(웃음) 근데 그것도 좋다. 소모임이든 다양한 분야의 동아리나 공동체들이 생기는 건 좋은 일이다. 늘씨네가 초대한 손님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늘씨네와 벗들'은 다른 상영에 비해 좀 더 친밀한 느낌이다.

남훈 | 늘씨네를 만들고 나서 몇 번 정기상영회를 진행했는데, 크게 호응이 없었다. 좀 다른 형식의 상영

회를 고민하다가, 그곳이 카페 같은 공간이란 점에 생각이 미쳤다. 사람들이 만나고 어울릴 수 있는 형태의 상영회를 만들면 좋겠다 싶었고, 그래서 특별한 손님이 추천한 영화를 상영하고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영화감독, 평론가, 프로그래머부터 시인, 작가, 기자, 사회활동가 등등, 손님들의 면면이 다채롭다. 대화 시간이나 뒤풀이 시간이 더 재미있을 것 같은데.

김선미(이하 선미) | 대화나 뒤풀이 분위기는 손님에 따라, 그리고 관객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다. 강의처럼 준비해 오시는 분도 있고, 편하게 술자리 하면서 진행하길 원하시는 분도 있다. 10명 정도 모이는 소규모 상영회라, 개인적인 사연도 이야기하면서 가급적 친근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올해는 사전에 질문을 받아서 손님들이 말할 거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김남훈 이사가 뒤풀이 안주를 만들고 있는데, 안주 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웃음)

남훈 | '늘씨네와 벗들'은 다양성 취향이다. 손님이 누구냐에 따라 영화를 보는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영화를 보는 방식은 영화평론가의 방식과는 다르다. 이런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거다.

각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은 어떻게 하나?

남훈 | 각각 맡은 팀이 있다. 늘씨네 운영은 우리 조합원들이 만든 비영리단체 '작당모의자'가 맡고 있다. 모극장 관련 단체는 아닌데, 구성원이 다들 조합원이더라. 그래서 공간 운영도 위탁했다. '늘씨네와 벗들'은 작당모의자와 김선미 프로그래머가 같이 기획한다. '시[SEE]:사회'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담당 직원과 같이 기획하고 있고.

프로그래밍할 때 참고하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있나?

선미 | 한 번에 찾을 수 있는 DB가 있으면 굉장히 편할 텐데, 지금은 정말 단순 무식하게 한다. 주제나 키워드를 무작정 찾는 거다. 예를 들어 여성이나 인권에 관한 영화라면, 그와 관련된 영화제들을 해외까지 찾아본다. 아직은 기존 영화제나 배급사별로 구축돼 있는 걸 활용하는 단계다.

남훈 | 그래서 우리가 아이쿱과 함께 '팝업시네마'라는 공동체 상영 중계 플랫폼을 만든다. 한 사이트에 여러 배급사, 영화제들이 모여 있는, 소위 O2O(online-to-offline) 사이트다. 여기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신청해서 공동체 상영을 하고, 영화제를 만들 수 있다. 공간도 검색할 수 있고.

시민프로그래머로서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로서의 전환 지점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다.

남훈 | 모극장 조합원들 중에 영화 전공자나 프로그램 경력자는 아무도 없었다. 전문적인 시네편도 아니고, 영화를 대중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적당히 좋아하는 사람이나,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런데 하다 보니 이렇게 상영 기획을 계속하게 돼서,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시민프로그래머로 보게 됐다. 2012년부터 청년기획단을 모집해 왔는데, 매년 청년기획단의 마지막 공식 활동이 프로그램 기획이다. 그중 하나가 랩톱영화제였고, 두 번째로 만들어진 게 시민관람 공동체 '영화의문'이다. 영화의문이 시민프로그래머 양성을 진행한다. '그들 각자의 영화관'이나 '팝업시네마테크'는 이 양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다.

다른 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

남훈 |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인 '사람마중'이 이번부터 시작하고, '사랑의 연탄나눔' 단체와 함께 연탄 봉사하는 지역을 찾아가서 영화를 상영하는 '사랑의 영화나눔'이 있다. 일회성 상영회 의뢰가 들어오기도 한다. 영화 상영을 하고 싶는데 자

체적으로 수급하기 힘든 단체나 공동체에서 의뢰가 오면, 같이 의논해서 지역과 주제에 맞는 상영을 기획해 준다.

운영 예산이 고만일 텐데, 지원은 좀 있나?

남훈 | 재작년, 작년에는 초기 단계여서 지원금이 조금 있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았고, 'H-온드림'이란 사회적기업 경영대회에서 받은 상금도 있었다. 올해는 출장지원 사업 하나 받은 것 빼고는 없다. 지원을 받으면 좋긴 하겠지만, 자립을 위해 줄여 나가려고 한다.

모극장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다.

남훈 | 우리 모델은 다주체 참여 협동조합이다. 처음에는 사회적기업이면 어떨까 하는 고민도 있었다. 하지만 많은 주체들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봤다. 생산자 조합이긴 한데, 일반적인 생산자 조합의 느낌은 아니다.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다. 관람자의 역할이 단순히 관람하는 걸로 끝난다고 보지 않는다. 영화제를 기획하거나 영화를 선정하면서 시민으로서 생산에 참여할 수도 있고, 관람 운동을 벌일 수도 있다. 관객들이 무언가 조직하고, 시민들이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시민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영화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협동조합 모델이 가장 적당하다 싶었다.



협동조합으로서 자립의 가능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남훈 | 협동조합의 장점은 협동조합끼리의 연대다. 아이쿱 생협과 다양한 형태의 사업들을 진행하며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측면이 있다. 재정적인 부분은 아직 법적인 제약들이 있어서 협력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하지 않다. 금융협동조합 같은 제도가 마련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아이쿱 생협과는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나?

남훈 | 아이쿱에서 먼저 제안했다. 아이쿱에서 공동체 상영을 하고자 하고 각 지역마다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이 어려움을 상호 협력해서 해결하려 하다 중계 플랫폼 얘기가 나왔다. 아이쿱이 조합원으로 출자해서 들어오는 형식으로 만들기로 했다. 아이쿱이 가장 어려워했던 건, 영화를 선정할 때 정보 문제와 비용에 대한 문제였다. 정기적으로 공동체 상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시민프로그래머가 영화를 기획할 수 있다 해도, 일단 상영을 하려면 틀고 싶은 영화의 배급사가 어딘지 알아야 하고 연락해야 하고 수급해야 하는 등등 정보와 절차와 비용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있으면 이런 게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다.

마지막으로 이름에 대해 묻고 싶다. '모두를 위한 극장'이라는 이름에는 현재 극장 시스템에 대한 비판적인 뉘앙스가 있는 것 같다.

남훈 | 여러 후보들을 올려서 투표로 정한 이름이다. 우리가 다주체이고 영화 협동조합이란 정체성이 드러나는 이름을 정하고 싶었다. 다주체의 참여를 통해 소외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도전하고 대안을 지향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이름이 뭘까 고민했다. 극장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가 많았지만, 우리는 어디든 극장이 될 수 있다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모두를 위한 극장'이 좋더라. 처음엔 그냥 줄여서 모극장 했던 건데, '모' 자를 잘 보니까 아무개 모(某) 자가 생각나면서 그걸 병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모(某)극장'이라는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다. 예전 명함에는 '공정영화협동조합'이라는 단어와 '모극장'이라는 단어가 동등하게 들어갔는데, 올해부터는 '모(某)극장'이라는 이름을 더 크게 넣고 있다.

취재 최혁규 | 사진 김지은

‘다른 영화’를 경험하는 주말 극장

비주류영상공간
옥인상영관



서울의 핫플레이스가 되어 버린 서촌에서 아직 한적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옥인동 주택가를 걷다 보면, 한 골목 끝에서 ‘옥인 페아뜨레’라는 문패가 걸린 이층 양옥집을 만나게 된다. 단편/독립영화를 비롯한 비주류 영상을 소개하는 대안공간 옥인상영관이다. 2013년 낡은 집을 개조하여 문을 열었다. 건물 1층에 마당이 보이는 널찍한 라운지와 좌석 6개짜리 작은 상영관이 마련돼 있다. 첨단 상영 장비와 편의시설을 갖춘 멀티플렉스에 익숙한 관객이라면 이 작은 영화관이 낯설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선 일반 극장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특별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다. 8월 30일, ‘최신춘 치맥 영화제’ 마지막 날 옥인상영관을 찾았다. 영화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와 치맥 파티가 예정되어 있어서인지, 이 날은 보조의자까지 들여놓아야 할 정도로 관객이 많았다. 친근하고 활기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옥인상영관 김종우 대표와 만나 유쾌한 대화를 나눴다.



옥인상영관 김종우 대표

옥인상영관은 어떻게 문을 열었나? 이 공간이 먼저 주어졌 있었다. 여기서 어떻게 놀아 볼까, 고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영화관을 한번 해 보자는 결론이 났다.

5명이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다들 고등학교 친구. 개인적으로 하는 일들은 모두 따로 있다. 나는 미술을 하고, 가구회사에 다니는 친구, 요리사, 잡지 기자, 세브란스 건물 관리하는 친구도 있다. 그래서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거다. 각자 역할이 있긴 한데, 고정된 건 아니다. 사실 영화관을 차린 건 내가 하고 싶어서였고 친구들은 거기에 끼어 있는 거다.

독립영화, 상영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는 영화에 원래부터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나? 블록버스터만 보는 친구도 있고, 영화관에 가는 거 자체를 안 좋아하는 친구도 있다. 나는 물론 영화를 좋아한다. 미술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창작을 하는 사람이 겪게 되는 영화 외적인, 현실적인 부분을 신경 쓰게 된다.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가 힘들잖나.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자금도 많이 쓰고, 누군가에게 보여 주고 싶고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보여 줄 기회 자체를 얻기 힘들다는 사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남들이 안 들어 주는 거, 우리가 들어가겠다 싶었다. **운영하는 데 드는 재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재정적인 문제는 없다. 일단 임대료가 안 나가니

까. 비용이라면 영화를 틀 때 전기요금 정도 들 텐데, 그건 관객들이 내는 금액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관람료 5,000원 말인가? 사실 그 5,000원은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일종의 책임비 개념에서 받는 거다. 처음에는 무료로 운영했는데, 영화 상영 중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걸 막으려면 일정 정도 관람료를 받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돈을 낸 만큼은 얻어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 테니까. 영화제 성격에 따라 관람료를 아예 받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때는 관객이 자율적으로 내고 싶은 만큼 내도록 한다.

관객은 어느 정도 오나? 한 달에 평균 4~50명 정도다.

관객층은 어떤가? 나도 그럴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다양하다. 20대부터 5~60대까지. 어제 50대 부부가 다녀갔다. 주 관객층은 2~30대 여성이다. 자주 찾는 관객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처음 오는 것 같다.

관객과의 소통이나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홍보는 따로 하지 않는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정도만 옥인상영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에 올리는 정도다. 소통에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는다. 가끔 우리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관객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야기를 나누지만, 딱히 누구를 붙잡아 놓고 얘기를 하진 않는다. 관객 중에 이것저것 묻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내가 맥주를 마시고 있으면 자기도 달라고 해서 같이 마시기도 하고, 그 정도다.

상영하는 영화들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내 마음이다. 내가 봤을 때 틀어줬다는 생각이 드는 영화. 운영 초반에는 섭외를 했다. 내가 영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섭외를 하고 찾아다니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틀고 싶어서 섭외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공모에 지원한 영화들 중에서 기획에 맞는 것을 고른다. 너무 아마추어 티가 난다든지 누가 봐도 재미없겠다든지, 이런 영화들을 걸러 내고 남은 영화들 중에서. 단편들만 모을 때도 있고, 중편이나 장편을 틀 때도 있다. 장르도 가리지 않는다.

지원은 많이 들어오나? 주로 어떤 영화들인가? 많지는 않아도 꾸준히 들어온다. 굉장히 다양하다. 다큐멘터리도 있고, 일반적인 장르영화들, 사회 고발적인 영화들, 내러티브가 없는 실험적인 작품들도 있다. 작품의 길이로 따지면, 단편들이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단편영화를 틀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기획은 항상 본인이 하나? 대부분 내가 하지만 기획도 공모한다. 이번 치맥 영화제는 오렌지필름에서 지원한 기획이다. 공모에 들어온 기획이 괜찮아 보이면 공간을 빌려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해 왔다. 영화제도 있고, 전시도 있고, 갤러리 같은 데서 걸리는 영상 작업물을 따로 모아서 트 적도 있다. 기획은 열려 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들고 와도, 이 공간과 어울리고 열정이 있다면 진행한다.

기억에 남는 작품이 있다면? <독개구리>라는 작품이랑, '콧수염필름즈'. 콧수염필름즈의 영화는 여기서 처음 틀었는데, 반응이 좋았고 이후에 여기저기 많이 상영이 됐다. 감독이 밥 먹고 살 수 있게 됐고. 원래 감독 지망생이었고 단편 작업을 계속 해 왔는데, 이 영화들로 영화제도 가고 대림미술관에서 강연도 하더니 잘 풀려서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장편 준비 중이다.

그런 경우들이 더 있나? 여기서 상영한 이후까지 찾아보진 않아서 잘은 모른다.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지내는 감독들이나 배급사 쪽에서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지만. 근데 극장판이라든지 망월상영관이라든지, 이런 작은 영화관들이 생기고 나서 그쪽에서 종종 상영을 하는 것 같다.

하반기에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겨울에는 문을 닫는다. 낡은 건물이라 난방이 잘 안 돼서, 너무 추워서 영화를 볼 수가 없다. 그전까지 세 번 기획이 남았는데, 9월에는 '롱롱롱숏숏'이라고 장편과 단편을 함께 상영하는 영화제를 하고, 10월에는 공개방송을 하



게 될 것 같다. 음악공간 문래레코드와 함께 '문옥씨네'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라디오에서 고정 게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다. 아나운서와 게스트들끼리 이거 나쁘지 않다, 재밌다, 우리끼리 더 해 보자, 싶어서 따로 팟캐스트를 만들었다. 방송에서는 우리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보통은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감독과 함께 자리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상영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영화를 보고 팟캐스트를 들어도 되고, 팟캐스트를 듣고 영화를 보러 와도 좋다.

상영할 때 GV를 보통 같이 하나? 감독이 요청을 한다면. 내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리를 마련하지는 않는다. 사람이 많이 오면 귀찮아진다. 사실 이게 내 본업도 아닌데 귀찮은 일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 보여 주길 원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진 않길 바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준비된 관객들, 이곳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영화를 보여 줄 생각이다. 여기가 찾아오기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장기적인 계획은? 없다. 내 삶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그때그때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한다.

옥인상영관이 얼마나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나? 내가 싫어질 때까지. 아니면 이 건물이 없어질 때까지.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지라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물리적으로 그만두게 되는 거다.

최신춘 감독의 단편영화 4편(<알바당 선언>, <행운동 검소년>, <광광이 익스프레스>, <가장보통의 후라보노>)이 상영된 후, 관객과 감독, 기획자가 함께 둘러앉아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치맥 파티가 벌어졌다. 이번 영화제를 기획한 오렌지필름의 민지연 대표와 최신춘 감독에게 오늘 상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런 대안 상영 공간에서 상영 기회를 가진 적이 있나?

최신춘(이하 신춘) | 서울독립영화제나 미장센단편영화제에 출품했을 때 단편 하나씩을 상영했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모아서 트는 건 처음이다. 작은 영화관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고 지연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려 줬다.

민지연(이하 지연) | 이태원에 있는 극장판은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옥인상영관은 우연히 알게 됐다. 통인동에 기름떡볶이를 먹으러 왔다가 근처를 지나며 우연히 발견했다. 여기를 알게 된 뒤에, 신춘 언니 단편을 묶어서 들고 싶다는 제안서를 김중우 대표에게 보냈다. 그래서 8월에 상영 기회를 얻게 됐고, 영화 상영에 좀 재밌는 걸 없어 보자고 생각했던 게 치맥 영화제다. 치맥이 여름과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이번에 유난히 관객이 많이 왔다고 들었다.

지연 | 맞다. GV가 있어서 특히 그런 것 같다. 오렌지필름을 하면서 느낀 건 감독과 만날 수 있을 때 관객이 더 많이 든다는 거다. 분명히 영향력이 있다.

오렌지필름은 단편영화 상영을 전문적으로 기획하는 곳인데, 어떻게 만들게 됐나?

지연 | <환상 속의 그대> 연출부로 일할 때,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터무니없이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독은 물론이고 제작부, 연출부를 비롯해서 영화를 만드는 모든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수익이 더 많이 돌아가는 구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렌지필름을 만들고 상영회를 시작하게 됐다. 진짜 좋은 독립영화들이 많다. 영화를 틀 수 있는 장소가 많지 않다는 게 안타까웠고, 그래서 상영 기회를 확대하는 걸 목표로 상영 공간을 찾아다니면서 상영회를 기획하고 있다.

이번 치맥 영화제의 경우 수익금이 감독에게로 다 돌아가나?

지연 | 그렇다. 그런데 치킨을 시키면서 돈이 많이 들었다. 사실 적자다.

이렇게 관객들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은가?

신춘 | 영화제에서 GV를 한 적은 있지만, 오늘처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건 처음이다. 관객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해 줬다. 이해가 안 된다는 항의도 포함해서.

지연 | 주말마다 계속 여기를 지키면서 관객들의 평을 많이 들었다. 관객들이 정말 솔직하게 얘기해 줬다. 어떤 장면이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기도 하고. 감독들에게 이런 자리는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다. 영화를 만드는 게 개인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공유하려고 하는 거니까. 관객들의 생각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

이번이 몇 번째 기획인가?

지연 | 네 번째다. 주로 한예중 작품을 많이 틀었다. 한예중 배급팀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셨다. 미국에서 상영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인연이 닿아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고 있다.



최신춘 감독(좌), 민지연 오렌지필름 대표(우)

기획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지연 | 일단 영화를 보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한다. 기준은 따로 없다. 봤을 때 느낌이 중요하다.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상영 의뢰가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경력을 쌓아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좋은 작품을 틀어야 그 다음에 또 좋은 작품이 들어온다. 그동안 우리가 상영한 작품들을 보고 작품을 보내 준 감독님도 있었다. 우리가 영화를 틀었을 때, 믿고 볼 수 있는 상영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인디스토리 같은 전문 배급사들도 있는데, 대안적인 배급 형태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

신춘 | 친구에게 도움을 받는 게 좋았다. 내 작품은 영상원 배급팀에서 배급을 하는데, 지연처럼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오렌지필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키울 생각인가?

지연 | 가장 하고 싶은 건 영화 제작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좋은 감독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만약 장편을 한다면 돈도 지원해 주고 싶고. 진짜 좋은 영화관들과 접촉해서 감독들이 상영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다. 그래서 장범준처럼 건물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다. 건물 한 층에서 상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면서 물욕이 생겼다. 부자가 되고 싶다.

취재 송재상 | 사진 이도훈

‘극장판’ 단편영화를 위한 작은 집

독립단편영화 상영관 극장판



이국적인 풍경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는 이태원. 복작거리는 거리를 지나 골목길로 들어서면 오랜 흔적이 묻어나는 동네와 청년 아티스트들의 개성 넘치는 공간으로 어우러진 우사단길이 펼쳐진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언덕을 올라 주택들이 빼곡한 골목 안으로 깊숙이 들어왔을 때가 되어서야 저 멀리 까만 철문에 선명한 노란 글씨가 보인다. ‘극장판’. 낡은 가정집을 개조한 극장판의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작지만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내부에 우선 놀라게 된다. 어느 한 공간 그냥 지나칠 수 없게끔 정성스러운 손길로 매만져 영화 관람 외에도 눈을 둘 곳이 많다. 극장판은 상영할 공간과 기회가 많지 않은 단편영화를 위한 소규모 상영관이다. 객석은 단 여섯 석. 정해진 시간표 없이 관객이 찾아오면 바로 그 자리에서 원하는 작품을 상영하는, 철저한 관객 중심 공간이다. 자칫 하드디스크 안에서 빛을 잃어 갔을지 모를 작은 단편들이 ‘극장판’이라는 이름을 달고 하얀 스크린을 물들일 때 관객들은 또 다른 영화를 만난다. 대형 멀티플렉스가 아니더라도, 화려한 블루버스터가 아니더라도, 이곳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모두 엄연한 ‘극장판’이다. 이 공간을 손수 만들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도맡아 운영하고 있는 권다솜 대표를 만나 궁금했던 얘기들을 물어보았다.



극장판 권다솜 대표

극장판을 만들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영화 연출을 공부했고 단편영화도 제작했다. 그런데 상영할 만한 공간이 없어서 학교 다닐 때부터 아쉬움이 있었다. 이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사실 금전적인 문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머릿속으로만 공상하다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덕분에 열떨결에 시작하게 됐다. 그게 없었으면 아마 못했을 거다. 크진 않지만 지원금이 있었고 공간도 제공해 줘서 부담을 덜고 시작할 수 있었다.

언제 문을 열었나? 작년 7월 초에 인천에서 오픈을 했다. 부평구청의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돼서 부평로터마켓에서 운영하다가 작년 말에 계약이 끝나 여기로 왔다. 11월에 이사 와서 오픈은 올해 1월 초에 했다.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그럼 여기로 와서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건가? 그렇다. 거지다. (웃음)

운영진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혼자다. 원래는 두 명이서 했다. 내가 영화를 담당하고 다른 한 명이 판매 상품을 담당했는데, 같이 하던 분이 따로 일을 준비하고 있어서 여기서 혼자 운영하게 됐다.

극장판으로 이름을 지은 이유나 특별한 의미가 있나? 실은 검색이 좀 어렵더라. 애니메이션 극장판만 나오고. 여기서 상영하는 영화가 ‘극장판’이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있다. 운영하는 나와 상영하는 작품의 감독, 서로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작명이다. 전에 인천에서도 같은 이름이었다.

이전에는 어떤 형태의 공간이었는지? 지하상가 중에 한 칸이었다. 전주의 청년몰처럼 노후된 상가에 청년들이 입점을 해서 활기를 불어넣어 보자는 거였다.

그때와 지금의 공간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 거기보다 여기가 백이면 백 좋다. 굳이 거기의 장점을 찾자면 맛있는 밥집? 그런 거 말고는 좋



은 점은 찾기 힘들다. 어르신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 간섭이 많아 스트레스였다. 여기는 단독주택이고 혼자 쓰는 공간이라 자유로워서 좋다. 그리고 서울, 이태원이라는 이점도 분명 있다.

서울에서도 이태원(우사단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 가정집을 개조해서 운영하게 된 이유도 궁금하다. 여기 말고도 홍대 주변 연남동까지 많이 알아봤다. 그런데 다 유지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더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곳을 찾던 중에 아는 분이 이곳을 소개해 줬다. 청년들이 모여서 운영하는 공방이 많고 계단장이라는 플라마켓도 있어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동네인데, 재개발 지역이라 대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맘대로 못 들어온다더라. 쫓겨날 일은 없겠구나 싶었다. (웃음) 재개발 지역이어서 불편한 점도 있고 분위기 자체가 다운되어 있는 것 때문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런 것 말고는 여기가 제일 매력적인 공간으로 느껴졌다. 이 동네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는데 상가 중에는 맘에 드는 곳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극장판이니까 상영관으로 쓸 방 같은 곳이 하나 있어야 했다. 이런 조건을 따지다 보니 결국 이 집에 들어오게 됐다.

공사도 다 직접 했는지? 그렇다. 별로 어렵진 않았다. 작년에 인천에서 한 번 해 봤서. (웃음)

왜 좌석이 6석인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 이 공간에서 최대한 편하게 볼 수 있는, 최대한의 좌석 수다. 좌석을 조금 더 확보하려고 스크린 위치를 바꿔 보기도 했는데 안락한 의자가 들어가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 최적의 수가 여섯이었다.

상영작을 공모하던데 선정 기준이 궁금하다. 계절(3개월)에 한 번씩 공모를 해서 한 달씩 상영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작품이 많이 들어오거나 괜찮은 작품들이 많아서 선정을 많이 하게 되면 두 달을 할애해서 상영한다. 그러면 두 달은 공모작을 틀고 한 달은 내가 수급한 작품을 틀다. 따로 기준이 있진 않다.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작품의 기준에 맞춰 뽑는다. 사람이다 보니 기호나 취향에 따라가는 것



같다. 아는 분들 작품이 공모에 들어오면 약간 애매하다. 무조건 뽑기도 그렇고 안 뽑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 공모에 내지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작품을 달라고 한다. 나중에 수급을 하면 되니까.

그럼 상영작 선정 주기가 한 달인가? 한 달에 몇 편이나 상영하나? 매달 1일에 신작을 발표한다. 한 달에 한 번씩으로 정한 건, 단편영화는 보통 이렇게 상영하는 곳이 없어서다. 보통 묶음 상영이다. 극장판은 개별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엔 '한 달에 한 번 올 만하겠다' 싶은 작품 수가 몇 편일지 고민했다. 하여 세 편에서 네 편 정도로 진행하고 있다. 단순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한 달에서 너 편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계산을 했다. 혹시 묶음 상영을 하게 되더라도 관객들이 보기에 부담 없는 러닝타임이 나오려면 몇 편이 있어야 할까 생각해 봐서 너 편이 적당할 것 같더라. 더 많은 작품을 상영하고 싶은 욕심은 계속 있다. 처음에는 대여섯 편 상영하기도 했다. 근데 그러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게, 이런 독립단편영화를 찾아서 보는 관객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작품 수가 늘어나면 관객 수가 쪼개지더라. 만약에 한 달에 열 명이 온다고 치자. 열

편 상영하면 작품당 한 명씩 보는 거고 두 편 상영하면 다섯 명씩 보는 거다. 안타깝더라. 감독들에게도 미안하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안정적인 숫자를 선택하게 된 거다.

상영작 포스터도 직접 제작하는지? 포스터는 스틸 중 한 컷을 선정해서 만든다. 극장판의 모든 디자인을 직접 한다. 그냥 되는대로 한 거다. 마음 같아선 더 신경 써서 하고 싶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경험이 많지 않아 한계가 있다. 지치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하고 있다.

감독과 수익 분배는 어떻게 하나? 티켓 가격이 편당 2,000원이다. 반은 갖고, 반은 감독에게 간다. 5대5로 정산한다. 안 그러면 백 원 단위라 복잡해진다.(웃음)

상영 시간표가 따로 없고, 수시로 오는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면 바로 상영을 하는 시스템이다. 어떻게 구상하게 되었는지? 상영작이 단편영화니까 짧으면 5분짜리 작품도 있는데 이걸로 시간표를 짜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너무 많이 쪼개진다. 그래서 시간표 없이 관객이 오는 대로 영화를 상영하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었다. 관객들도 편하고 내가 운영하기도 편한 방법을 찾은 거다. 선착순이다. 예약도 없다.

하루에 몇 회차나 트나? 따로 체크를 하진 않아서 회차는 잘 모르겠다. 인원으로 따지면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다. 한두 명이 오는 경우가 많으니 그렇게 치면 10회차 정도일 것 같다. 많을 때는 4~50명도 온다.

관객이 많으면 각자 선택하는 영화가 다를 땐데, 어떻게 상영하는지? 우선 어떤 영화를 볼지 결정해 달라고 한다. 약간 복잡하다. 혼자 운영하다 보니 관객이 물리면 열 명만 넘어도 정신이 없다. 공간이 좁기도 하고. 종종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기도 한다.

영상 시스템은 어떻게 구비되어 있는가? 가정용 프로젝터와 맥북과 집에서 부모님이 쓰지 않는 5.1채널 홈시어터 스피커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 천장에 프로젝터가 달려 있다. 작년에 인천에서 받은 지원금을 장비 구비하는 데 많이 썼고 지금도 그대로 사용 중이다.

관객과의 대화도 진행하나? 아직까지는 못 해 봤다. 정말 하고 싶는데 상영 시간표가 없다 보니 관객들이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서 진행하기가 어렵다. 가장 큰 단점이다.

상시적 상영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는 없는지? 고전영화를 단발적으로 트는 적은 있다. 하지만 꾸준히 진행하는 이벤트는 아직 없다. 계획하고 있는 건 모임 같은 거다. 영화 감상 모임이 될 수도 있고 영화 제작 모임이 될 수도 있다. 나도 시



나리오 쓰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같이 더 얘기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싶다.

주 관객층이 궁금하다. 2~30대 여성이 많다. 주로 친구들이랑 궁금해서 찾아오는 분들이다. 남녀 커플의 경우 여성분이 어디선가 극장판을 보고 남자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많고.(웃음)

관객들의 반응은 어떤가? 들어올 때도 '신기하다', 나갈 때도 '신기하다'. 영화를 좋아해서 오는 게 아니라 공간이 궁금해서 오는 분들이 많다. 들어올 때는 이 공간이 신기하다는 반응, 나갈 때는 금방 본 단편영화가 신기하다는 반응인 것 같다.

단골 관객들이 있나? 꾸준히 매달 와서 상영작을 챙기는 관객들이 있다. 오면 그냥 안 가고 수다 떨고 놀다 간다.

인상 깊은 관객이 있다면? 이 동네는 한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여기까지 안 올라오기 때문에 가게들이 장사를 잘 안 해서 조용한 편이다. 그런데 극장판은 한겨울에 오픈했고, 게다가 주택가 사이에 있다. 여기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홍보도 제대로 안 했는데 찾아온 관객이 있다. 그 관객이 8월 상영작 중 <도미노 레이디>를 만든 서운수 감독이다. 그분이 제일 인상적이지만, 기분 좋게 나가는 분들은 다 기억에 남는다.

홍보는 어떻게 하나? 거의 온라인으로 한다. 블로그와 SNS에 의지하고 있다. 최근 여러 매체에서 인터뷰를 많이 해서 그걸 보고 오는 분들도 있다. 근데 얼마 전 기사가 올라오던 날, 온라인에서는 몇 백 명이 팔로우를 하고 댓글을 달았는데 정작 관객은 평소보다 없었다.(웃음) 온라인에서 뜨거운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

판매하는 상품이 꽤 많은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직접 만든 가방과 캔들, 취미로 찍은 사진, 각종 액세서리, 수공예품, 좀 많다. 작년부터 판매하던 것들이다. 품목을 변경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앞으로는 영화와 관련된 상품만 판매할 계획이다. 영화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오니까. 독립출판물 중에 영화 관련 잡지, 리뷰 도서, 그리고 일러스트로 포스터나 엽서를 만드는 분들의 상품을 위탁 판매할 예정이다.

판매 수입은 어떤가? 영화와 비교했을 때, 상품 판매 수입이 더 많다. 영화는 티켓 한 장당 천 원이 남으니 열 명이 와야 만 원이 남는다.(웃음)

지원금이 전혀 없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나? 상품과 티켓을 판매하는 수익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작업해서 얻는 수익도 가져다 쓴다. 버는 건 없는데 붓기만 한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 유지가 가능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이걸로 부자가 되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저 좋아서 하는 일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커지면 재미가 없어질 테고 힘들어질 테니 그렇게 되지 않으려 이것저것 방향을 찾고 있다. 그래서 영화 관련 모임도 만들려고 하는 거다. 유지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문 닫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다. 최근 7,8월은 방학이어서인지 놀랄 만큼 관객이 많았다. 앞으로가 조금 걱정이다.

관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운영하다 보니 내가 보고 싶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더라. 별의별 사람을 만나게 된다. 극장판은 불편하고 딱딱한 공간이 아니다. 시간표도 없고 꽤 유연하다.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니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조금 겁이 나는 부분은 신기하고 궁금해서 온 관객들이 실망을 하고 다시 안 오게 되는 거다. 단편영화, 독립영화의 특성이 있다 보니.(웃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이런 영화 왜 트냐, 하는 식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좋겠다. 영화 끝나고 여기 앉아서 조금 쉬다가 가서도 된다. 영화가 재미없으면 막 나가기 바쁘시더라. 감상을 더 많이 전해 주면 좋겠다. 내가 추측하는 관객들의 반응과 직접 듣는 것은 다를 것 같다. 다음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게,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듣고 싶다.

취재 김도란/이은지 | 사진 유수진



제작부터 홍보, 배급, 상영까지 팔도 유랑

상부상조 다큐멘터리 상영 프로젝트 다큐유랑



독립영화는 상영하기 힘들다. 독립다큐멘터리를 상영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상영 기회를 찾기 어려운 다큐멘터리를 적극적으로 배급하기 위해 감독과 제작자들이 발로 뛰며 상영 유랑을 떠나기로 했다. 이름하여 다큐유랑. 서울영상집단의 <자전거, 도시>, 늘샘 감독의 <늘샘천축국년>, 김수목 감독의 <내가 필요해>, 나바루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다큐창작소의 <불안한 외출>이 다큐유랑의 주인공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대형 극장들은 이윤을 우선하여 영화를 일방적으로 선택하고, 지방 소도시에서 사는 이들은 독립영화를 보려면 서울까지 가야 한다. 게다가 극장에 들어가면 좌석 발로 찰까, 옆 사람에게 팔 닿을까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다큐유랑은 기존 극장 질서에서 벗어나 같이 웃고 울고 떠들며 영화를 보기 위해 관객을 직접 만나러 간다. 경기도에서 충청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까지, 그야말로 팔도 유랑이다. 8월 25일 양평 두물머리의 두머리부엌에서 그 첫 여정이 시작됐다. 지역 농산물로 음식을 만들어 내놓는 협동조합카페 두머리부엌의 조합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공미연 감독의 <자전거, 도시>를 함께 보고 도란도란 얘기를 나눴다. 상영이 시작되기 전, 공미연 감독에게 유랑에 얽힌 사연들을 들어 봤다.



<자전거, 도시> 공미연 감독

다큐유랑에 대한 소개부터 듣자. 다큐유랑은 개별 작품들이 모여 있는 느슨한 프로젝트다. 한 해에 굉장히 많은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지만, 극장 개봉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기존의 극장 개봉 방식에서는 배급사가 있어도 상영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공동체 상영 자체를 하기 힘든 여건일 때도 있다. 이런 현실에서 벗어나서 제작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객을 만나 보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다.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나서 상영이나 배급을 못하고 있는 작품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열심히 해 보자는 생각으로 만든 거다.

다섯 작품이 같이 모이게 된 배경이 궁금하다. 사실 다섯 작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모였을 때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배급을 하느냐는 고민을 가지고 만났다. 비극장 상영을 하더라도 사회적인 시의성을 놓치면 단체와 협력해서 상영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보면 <자전거, 도시>도 애매한 작품이다. 자전거 동호회에 갈 것도 아니고, (웃음) 도시 관련 공동체 상영을 하기에다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니까. 대부분 작품이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상영의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혼자서는 막막하니까 그러면 같이 모여서 하자는 마음이 제일 컸다. 회의 때는 무조건 한 명은 참석해야 하고, 배급사에게만 맡겨 놓는 형태가 아니고, 서로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만들어 나간다는 게 취지였다. 함께 회의에 나오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작품이 이 다섯 편이었다. 관심은 있지만 여력이 안 된다거나 지방에 있는 등의 이유로 같이 못한 분들도 있다.

배급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맺고 있나? 우리가 맨 처음에 논의했던 건, 개봉이 아닌 비극장 상영 활동을 하는 배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였다. 실질적으로는 공동체 상영이나 비극장 상영을 활발하게 하는 배급사가 없었던더러,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 제작자가 직접 나서서 배급까지 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싶었다. 처음에는 배급사 없는 작품들끼리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았다. 배급사와 계약한 작품들 중에서도 다큐유랑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러면 처음에 생각했던 배급사 없이 제작자들끼리 스스로 상부상조하는 다큐유랑하고는 결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았다. 하지만 다큐유랑의 취지가 적극적으로 관객들과 만나 보자는 거였기 때문에, 배급사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시작할 때는 배급사가 있는 작품이 더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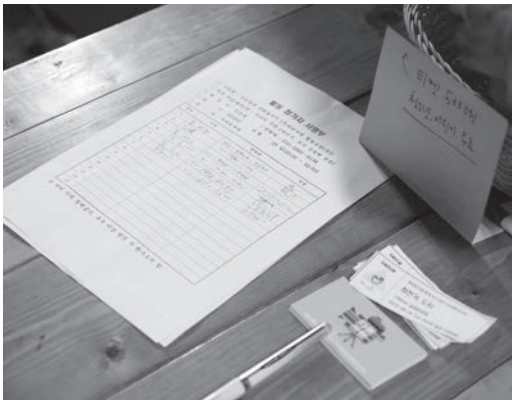
었지만, 지금은 모극장이 배급하는 <늘샘천축국년> 외에는 배급사가 없다. 중요한 건 배급사도 공동체 상영이나 우리의 목적에 대해 이해하고, 제작자와 배급사가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거다. 앞으로 다섯 작품이 배급사와 계약을 맺고 개봉을 할 수도 있다. 앞일은 모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열어 두고 시작하자고 논의했다.

다섯 작품이 각기 맡은 역할이 있는지? 지금 10명이 회의에 참석하며 진행하고 있다. 팀별로 따로 맡은 분야가 있는 건 아니다. 10명이 자기 장기를 살리기도 하고,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다. 작품 소개를 위해 유튜브에 올린 프리뷰 영상의 경우에도 <바보들의 행진> 조이예환 PD가 프리뷰 작업을 해 보고 싶다고 해서 만든 거다. 회의를 할 때도 대표 개념도 없고 안건도 없어서 회의를 한다. 대신 단계별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정해 놓았다.

본격적으로 유랑을 시작하게 전에 어떤 기획을 했나? 처음에는 진짜 유랑처럼 길거리에서 상영해 보겠다는 부푼 꿈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야외에서 상영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전기를 끌어오려면 발전차가 필요하고, 발전차 소음과 비용 문제도 있었다. 그래서 동네 카페나 각 지역의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비극장 상영을 기획했다. 애초에 극장 상영은 생각을 안 했는데, 진행하다 보니 부산의 국도예술관에서도 상영하게 됐다. 나주에서는 야외 상영을 할 계획인데, 기대 반 걱정 반이다.

텀블벅을 통한 모금 활동은 어떻게 기획했나? 성과에 대해 평가해 본다면? 처음에는 자비를 들여서라도 돌아다니자고 생각할 만큼 적극적으로 관객을 만나겠다는 열의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 (웃음) 그리고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에게 독립 다큐의 현재 상황에 대해 많이 알려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텀블벅에서 소셜펀딩을 하게 되면 홍보 효과도 있으니까, 40일 정도 모금을 진행했다. 해 보니까, 독립 다큐의 사회적 위치가 소수라는 걸 느꼈다. 예를 들어 게임 관련 애니메이션의 경우 2,000% 달성률을 보이는 프로젝트도 있다. 그 정도 반응은 아니어도 영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





각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다큐는 극영화에 비해 낯설고, 제작이 아닌 상영 프로젝트라서인지 흡입력이 떨어지더라. 상영하러 돌아다니는 데 내가 굳이 돈을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오히려 개봉이라면 관심을 더 가질 텐데, 지역 상영이니까 그 자체에 대한 의문도 있었을 것이고. 직접 가서 볼 수도 없으니까. 그래도 텀블벅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지인들이 조금 편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었고, 매체 없이 모금하는 것보다는 홍보 효과가 꽤 있었다고 본다. 다큐유랑과 직접 관련 없는 불특정 다수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목표액을 초과해서 달성했으니 결과적으로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관람을 원하는 공동체들과 어떤 과정을 거쳐 작품을 상영하게 되나? 상영 예정 장소가 카페, 도서관, 소극장, 시민단체 등 다양하다. 전체 유랑을 하면서 팔도를 다 가서 '전국'이라는 타이틀을 걸어 보자는 생각을 했고, 작품별로 두 곳은 무조건 섭외를 하고 했다. 상영 신청을 받게 되면 선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섭외를 했다. 전부터 교류가 있거나, 영화에 나오는 곳은 먼저 전화를 했다. 지역 활동가분께 다큐유랑이라는 걸 알리고 어떤 곳과 같이하면 좋을지 물어보기도 했고. 처음 예상했던 곳에서 60% 정도 섭외됐고, 나중에 상영 의지를 보여 주셔서 추가된 곳도 있다. 이번 시즌 1은 이렇게 진행하지만, 블로그와 팸플릿에 상영 신청 안내를 실었다. 상영을 원하는 분들은 그걸 보시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상영 장비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봉고차에 스크린, 프로젝터, 노트북, 스피커를 전부 싣고 다니면서 방방곡곡 상영을 한다는 꿈이 있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 예산이 너무 많이 나왔다. 팀별로 가지고 있는 개별 장비를 다 쓸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건 개인 노트북 두 대뿐이다. 나머지는 전부 상영하는 곳에 있는 장비를 사용한다. 장소 섭외할 때 장비가 없는 곳은 미리 장비를 대여해서 가려고 했는데, 대부분 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더라.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어지간한 곳은 영상 상영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고 한다.(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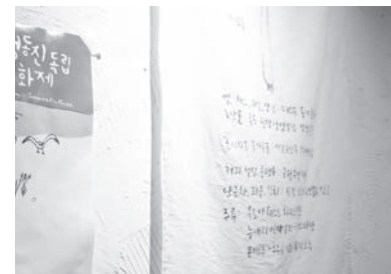
<자전거, 도시>에 나온 두물머리에서 첫 상영을 시작한다. 두머리부역은 어떻게 섭외가 됐나? 비닐하우스 철거 반대 투쟁을 했을 때와 마무리 촬영을 위해 겨울에 자전거 길이 놓인 뒤에도 두물머리에 왔었는데, 오늘 오는 길에는 옛날 생각이 나서 감회가

더 새로웠다. <자전거, 도시>에서 두물머리의 의미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하며 왔다. 직접 투쟁에 참여했던 분도 계시니까 반응도 더 궁금하고, 두머리부역에는 내가 먼저 제안했다. 두머리부역에서 '두머리극장'이란 공동체 상영을 하고 있는데, 첫 기획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동네 친구와 함께 보는 다큐멘터리' 4편을 상영한다. 그중 한 편으로 <자전거, 도시>를 상영하게 됐다.

작품에 대해서도 궁금하다. 도시와 자전거에 대한 영화를 찍게 된 이유가 있나? 자전거는 원래 좋아했다. 2005년부터 시내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도시에서 자전거 타는 게 상당히 불편하다는 걸 깨달았다. 별로 먼 거리를 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불편한지 생각하다가 자전거에 대한 다큐를 기획하게 됐다. 어떻게 만들지 고민만 하다가, 2012년에 도시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에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어졌다. 보통 자전거를 레저로 많이 이용하는데, 난 자전거가 레저보다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자전거를 타라고 권장할 수 없는 환경이다. 도시나 개발 문제를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자전거가 추구하는 가치를 표현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도시와 자전거를 연결해서 영화를 만든 거다.

차기작 계획은? 당장 작품 계획은 없고, 올해는 다큐유랑과 더불어 <자전거, 도시>의 배급을 열심히 해 보려 한다. 다뤄 보고 싶은 주제라면, 토종 씨앗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생각하고 있다. <자전거, 도시>를 만들면서 알게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토종 씨앗이 정말 없다. 다 외래종이라 로열티를 내야 하고, 채종하는 것도 힘들다. 먹을거리는 주로 교외 지역에서 생산되지만 도시에서 소비되는 것이니까, 씨앗을 매개로 도시에 관련된 일상적인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

앞으로 한 달간의 상영에 대한 전망이 어떤가? 잘됐으면 좋겠지만, 걱정되기도 한다. 상당히 외진 곳에서 상영할 때도 있는데, 관객이 많이 울까 걱정된다. 처음에는 낄낄하게 놀면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획을 짜 보니까 굉장히 빡빡하다. 하루도 쉬는 날이 없다.(웃음) 아무튼 새로운 관객들을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관객들은 만나고 싶나? 평소 다큐멘터리를 많이 안 보신 분들이 봤으면 좋겠다. 지역에서 상영한다는 정보를 보고 찾아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동네 카페에서 상영한다니까 우연히 들러서 보시고는 다큐멘터리의 재미를 느끼게 되셨으면 좋겠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보는 입장이랑 아닌 분들이 보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다. 그런 다른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 또 자전거를 많이 타는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 자전거를 타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던 분들이 내가 타고 있는 것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와 더불어, 보편적인 주거 형태라고 생각하는 아파트와 지금 같은 환경을 만든 도시 개발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다큐유랑이 변화,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텐데? 지금은 다섯 작품이 모여 있지만, 참여를 원하는 다른 작품이 있다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에 같이 전국 순회 상영을 하고 싶었지만 참여하기 힘들게 된 팀도 있었고, 9월 중순까지는 이 상태로 움직이게 될 거고, 그 후에 서울에 모여서 기획전을 하고 싶다. 이번에 지역별로 상영하면서 어느 지역에선 상영을 못 하는 작품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다시 기회를 만들어 상영하고 싶고, 새로운 공간을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다. 앞으로 이번에 함께 상영하는 공간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어서, 다큐유랑 작품 외에도 계속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시기를 3주로 한정하지 않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른 방식으로 다큐유랑처럼 모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더 좋겠고. 다른 지역에서도 몇 작품 모여서 다큐유랑처럼 전국 상영을 한다거나 다큐유랑 시즌 2 같은 지속적인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취재 김민범 | 사진 김지은

다큐유랑 작품

늘샘천축국년
늘샘 연출 | 2014년 | 96분

통영청년 늘샘의 청춘방랑다큐. 중국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네팔까지, 정처 없이 방랑하며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는다.

니가 필요해
김수목 연출 | 2014년 | 83분

2007년 9월,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앞에서 천막 투쟁을 시작한다. GM대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장기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

바보들의 행군
나바루 연출 | 2015년 | 76분

대학로에 문화의 불을 지피겠다는 포부로 가득한 '극단 시지포'. 하지만 그 구성원들은 하나같이 어딘가 모자란 초짜들이다. 그들의 무모한 행군을 담은 본격청춘방랑다큐.

불안한 외출
다큐창작소 제작 | 김철민 연출 | 2015년 | 90분

수배 생활 10년, 감옥 생활 5년을 보낸 후 출소한 윤기진에게 허락된 단 1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을 제약하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제도 속에서 한 가족이 겪게 되는 불안한 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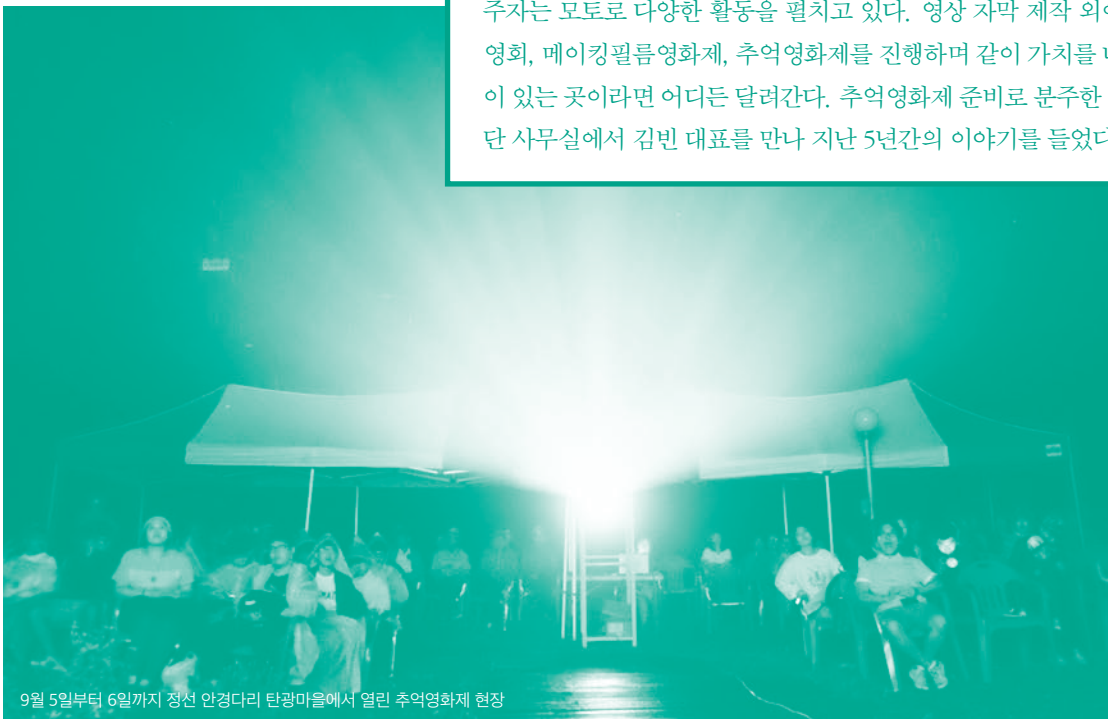
자전거, 도시
서울영상집단 제작 | 공미연 연출 | 2015년 | 140분

자전거가 전하는 도시의 이야기. 한국의 도시 형성 과정에서 경험한 지역 개발의 폭력성, 마을 공동체의 붕괴와 같은 도시와 삶의 문제들이 담담하게 펼쳐진다.

영화로 세상을 이롭게 하라

자막 제작부터 추억영화제까지 21세기자막단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터가 더 즐거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영화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21세기자막단이 고민하는 것은 이 두 가지다. 영화제 기술자막팀으로 일하던 프리랜서 자막가들이 스스로 변화의 방법을 찾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영화로 사람의 가치를 보여 주자는 모토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상 자막 제작 외에도 활력상영회, 메이킹필름영화제, 추억영화제를 진행하며 같이 가치를 나눌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추억영화제 준비로 분주한 21세기자막단 사무실에서 김빈 대표를 만나 지난 5년간의 이야기를 들었다.



9월 5일부터 6일까지 정선 안경다리 탄광마을에서 열린 추억영화제 현장

21세기자막단 소개부터 부탁한다. 오랫동안 영화제에서 자막팀으로 일하면서 개선해 보고 싶은 고민이 있어 21세기자막단을 만들게 됐다. 구성원이 5명인데 3명은 시작할 때부터 같이한 멤버고, 2명은 일한 지 1년 반 됐다.

모두 같은 임금을 나눠 갖는다고 들었다.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된 이유가 있나? 21세기자막단을 시작한 이유가 함께 일하는 친구들을 제대로 인정받게 하고 싶어서였다. 이걸 사람 한 명이 인정받겠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이 판이 좋아지지 않으면 어렵다. 같이 시작한 김미라, 오혜선 팀장과 합의를 했던 게, 선배인 우린 나름의 혜택과 지위를 가진 기득권이라는 거였다. 크기와 상관없이 기득권이 먼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지 않으면 다음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세 명의 급여를 기꺼이 다섯으로 나눈 거다. 덕분에 새로운 사람들이 같이 일하게 됐고 우리 내부에서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지향하는 미션이나 비전이 있다면? “저평가된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 주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영화 쪽이니까 영화판에 있는 친구들을 알리고 여기에서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내는지 알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21세기자막단 김빈 대표

자막 작업 외에 찾아가는 활력상영회, 루프탑 활력상영회와 같은 상영회를 운영하는 것이 흥미롭다. 첫 해부터 시작하게 됐다. 계속 자막 제작만 하다 보니, 이리려고 회사를 만들었다. 돈 버는 게 우리 목적인가, 하는 고민이 들더라. 자막을 만들면서 작업한 영화들이 좋은데 다음에 다시 볼 수 없다는 것도 아까웠고. 뭔가 해 보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구체적인 게 없던 차에, 벌교 낙성초등학교 아이들이 고무마를 파는 이야기가 트위터에 올라왔다. 그걸 보고 저길 가 볼까 하고 찾아갔다. 그때 아이들 피드백이 굉장히 좋아서,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해 보자고 한 거다.

작품 선정은 어떻게 하나? 어떤 사람들이 볼 건지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극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영화들, 독립영화라고 하면 어려워하시긴 한다. 근데 가서 보면 의외로 반응이 좋다. 재미있게 보신다. 환경영화제 아카이브를 활용해서 많은 작품을 틀었는데, 의외로 쉽게 재미있게 받아들이시더라.

어르신들도 재미있게 보시나? 물론 장편을 틀면 한숨 주무시고 끝날 때 일어나기도 하시는데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재미있어 하신다. 가장 최근에 했던 부산 송도 상영회에선 고맙다고 하고 내려가시다가 다시 올라오셔서 이런 거 또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 모여서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아주 즐거운데 그걸 아직 제대로 만끽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석구석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하게 볼 수 있게 훈련이 되려면 많이 보고 이런 기회를 접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다. 수익 사업이 아닌데 자막 작업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지? 거의 당일에 돌아오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교통비가 제일 많이 든다. 활력상영회 처음 할 때는 자막 작업으로 버는 돈을 다 투입했다. 처음엔 수익이 전혀 없었는데, 활력상영회를 했던 게 내부 역량이 돼서 ‘영화로 보는 사회적경제’ 같은 상영회를 만들었다. 그걸로 상영회 비용을 조금씩 받아서, 우리 수익이 백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80이 자막 작업이고 20은 상영회가 됐다. 작년부터 수익이 생겼다. 물론 순수익은 아니다. 대부분 작품을 임대해 오는 거니까. 그나마 장비가 있어서 거기서 조금 수익이 발생하는 거다. 사업 자체에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또 다른 수익 모델이 필요하다고 느껴 고민해서 만든 게 메이킹필름영화제다.

메이킹필름영화제를 기획하게 된 배경을 조금 더 설명해 달라. 영화를 만들면 보통 포커스가 배우, 감독에게 가기 마련이다.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기획했다. 영화를 홍보하는 다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다. 자막 제작과 비슷한데, 자막 제작을 하다 보니 안정적인 기술진이 생기고 그것으로 독립영화에 자막 제작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메이킹필름영화제의 인프라를 독립영화를 홍보하는 대안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으로 시작했다.

메이킹필름영화제를 강원도 정선 안경다리 마을에서 시작한 이유가 있는지? 폐광 지역 사회적경제 아카데미에 강의를 나가고 계시던 멘토 선생님께서 안경다리 마을을 소개해 주셨다. 워크숍에 가서 마을 분들을 만났는데, 거기 리더로 계시는 임경순 선생님 말씀이 인상적이었다. 마을에 사람이 진짜 없어서, 뭐 작은 일이라도 있으면 생기가 돈다고 하셨다. 그 얘길 듣고 이 마을에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추억영화제로 더 업그레이드됐다. 마을 분들 도움으로 메이킹필름영화제를 재미있게 끝내고 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제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마침 정선군에서 연락이 와서 이번엔 마을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기획하게 됐다. 추억해설사라고, 마을에 얽힌 추억을 들려주는 영상을 마을 분들과 함께 제작하는 거다. 공모전 참가팀이 영화를 만들면서 마을 분들과 접촉해서 관심을 갖고 존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있나? 메이킹필름영화제를 브랜드화해서 제대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싶다. 올해 조금 더 집중해서 해야 할 일 같다. 그리고 이번에 혁신파크로 이사를 가는데 그곳에 강당으로 쓰다가 몇 년 째 비어 있는 공간이 있다. 영화제작소 눈과 함께 그 공간에서 한 번도 상영되지 않은 영화들을 상영해 보자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돛자리 깔고 앉아서 시작하고, 극장에 걸리지 못한 영화들을 가지고 해 보려고 준비 중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데엔 내부의 역량을 키운 것도 있지만, 외부의 네트워크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우리끼리만 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독립영화제, 독립영화인, 혹은 독립영화판이 아니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누구든 우리에게 접촉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가지는 못해도, 와 주시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할 용의가 있다.

취재 윤도연 | 사진 김지은/21세기자막단

<우리학교>와 함께한 사람들



공동체 상영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우리학교>. 김명준 감독이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조선학교 학생, 교원들과 3년 5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그들의 일상을 담은 장편 다큐멘터리다. 2006년 부산국제영화제 운파상(다큐멘터리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같은 해 '올해의 독립영화'에 선정되기도 했던 <우리학교>는 2007년 3월 29일 개봉하여 극장에서 34,439명의 관객을 만났고 (영화진흥위원회 통계), 국내외를 오가는 활발한 공동체 상영으로 극장 안팎에서 총 10만 명이 넘는 관객과 만났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렸던 이 다큐멘터리는 지금도 매년 3월 기념 상영회를 계속하며 사람들과의 인연을 이어 가고 있다. 2007년 당시, 관객들과 함께했던 그때의 이야기를 고영재 PD에게 들었다.

TELL ME SOMETHING은 독립영화에 대한 개인들의 기억을 직접 들어 보는 일종의 구술사 코너다. 생생한 육성으로 전해지는 사건, 사고, 에피소드들을 통해, 독립영화의 중요한 고비들을 다시 기록하려고 한다. 꼭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었던 궁금한 사건 혹은 인물이 있다면, NOW로 연락 주시길. (편집자)

고영재 (<우리학교> 프로듀서)

2005년 겨울에 명준이가 촬영을 마치고 와서, 2006년 여름까지 1년 가까이 계속 편집한 것 같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그때부터 배급을 어떻게 할 건지 얘기했는데, 개인적으로 영화 제작은 처음이라 배급 경험도 딱히 없었어. 내가 잘 모르는 '극장'보다는 <우리학교>에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지 생각하다가 교회, 재일조선인 관련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 내가 강사로 있던 전국교사연수에서 만난 선생님들도 생각났지.

애초에 가장 먼저 홋카이도에 가서 상영회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 나눴기 때문에 2006년 12월 초에 홋카이도에 다녀왔고, 그걸 기점으로 알음알음 시작했어. 그때 영상 장비는 내가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차에다 아예 장비를 싣고서, "기술적인 문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틀겠습니다."하고 죽 돌아다녔지.

그러다 몸은 하나인데 명준이랑 나랑 둘이 뛰어다니는 건 약간 수공업적이란 판단에 상영 제안을 한국독립영화협회에도 보내고 미디어트를 통해 전국 단체들에 보냈어. 한 권역에 한 단체만 하자, 상영회를 여는 단체에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 최소 상영료를 정하자, 이런 원칙들을 만들고 워크숍을 진행했지. 비극장 상영, 공동체 상영은 그전에도 여러 형태로 있었고, 푸른영상이나 서영집(서울영상집단)도 특정 공간에서 상영회를 많이 했어. 관객의 자발성을 끌어내려는 움직임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우리학교>는 이른바 상영회 원칙이나 기본적인 룰을 좀 더 체계화하려고 했어. <우리학교> 블로그나 팬카페를 통해 각 지역의 공동체 상영 현황을 올리고, 공동체 상영 신청도 받았지.

2007년 3월에 개봉했을 때 열 몇 개 극장에서 상영했으니까 당시 독립영화치고 적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극장에서 본 관객만 관객이냐, 공동체 상영 관객도 관객이다'라는 생각으로 공동체 상영을 이어 갔어. 극장 상영과 부딪히면 안 되니, 극장이 없는 지역은 무조건 간다는 게 원칙이었지. 블로그에 정기적으로 지난주 관객이 몇 명 들었고 공동체 상영에는 몇 명이 왔고 이런 걸 자주 홍보하다 보니, 여러 언론사에서 "영화 배급의 새로운 방법, 공동체 상영을 아십니까?" 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기도 했어. 6월에 '5만 파티'를 하고, 배급을 맡았던 영화사 진진도 힘을 받아 7월에 재개봉을 하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다 보니 공동체 상영까지 다 해서 관객이 10만을 넘었더라고.

각 지역에서 상영을 맡았던 사람들은 다양했어. 시네마테크도 있었고, 선생님도 있었고. 다들 재미있어 하고 의미를 많이 느끼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줬어. 제일 인상 깊었던 분은 경북 지역의 선생님인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뛰어 주셔서 경북에서만 공동체 상영으로 거의 2만 명이 들었어. 초기에 국어교사 모임에서 했던 상영회도 감동적이었고. 뒤풀이할 때 선생님들이 수표를 막 꺼내시고 해서 격려를 많이 받았지. 강릉단오문화관에서 거의 만석으로 상영했을 때도 좋았고. 공동체 상영은 아니지만 광주극장에서 <우리학교> 순간판을 만들었던 것도 기억나.

우리 제작진도 열정적이었지. 감독(김명준), PD(고영재), 조감독(박소현), 셋이서 관객과의 대화가 없는 상영회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돌아다녔어. 나중에는 플라시오파로 <우리학교> 팬카페 사람들이 공동체 상영 실무진으로 뛰어들었고. 팬카페를 중심으로 OST, DVD도 팔고, 극장에 대한 홍보도 했지. 팬카페는 꾸준히 진화해서 '몽당연필'(조선학교와 함께하는 사람들)로까지 이어졌고. <우리학교>라는 다큐멘터리가 가졌던 힘이 지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재미있었어, <우리학교>는 정말 의미 있는 즐거움을 많이, 맘껏 누렸어. <우리학교>와 관련된 기억은 행복한 기억밖에 없어. 좋았던 기억, 행복한 기억.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취재 심미혜 / 정리 음소정 / 사진 <우리학교> 팬카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유지 비용에 대한 불편한 소회

내가 몸담고 있는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에서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 하나는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운영이다. 올해 2월 개관해 반년간 운영해 오던 중, 최근 어이없는 일이 있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분노에 한동안 잠 못 이를 것 같아, 이 지면을 빌려 그 이야기를 해 보려다.

얼마 전 입장권 전산망 사업자로부터 협의 요청 문서를 하나 전달받았다. 내용인즉 통합전산망 유지 보수 비용을 인상 요청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허걱! 계약서에 도장도 마르지 않았는데 인상 요청이라니……!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통전망)은 영화관으로부터 발권 데이터를 건네받은 전산망 사업자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에 필요한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재전송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전산망 사업자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영진위가 온라인을 통해 매일 공개하면서 누구나 손쉽게 해당 영화의 관객 데이터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 통전망은 과거 조직폭력배가 극장을 장악하던 시절 영화 표를 판매한 현금 수입이 어느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뺨뺨되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해 배급사가 극장에 가지는 원천적 불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단지 그뿐일까? 통전망을 기본적으로 배급사와 극장 간의 공정거래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 통전망의 가장 큰 기능 중 하나가 바로 투명한 조세 부담 원칙이다. 정부 입장에선 뺨뺨과 축소 신고가 관행처럼 되어 있는 극장이 소위 지하경제일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통전망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과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와 잇닿아 있다. 법인사업자는 물론 최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의무화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원천 봉쇄하여 탈세를 방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홈텍스 시스템의 유지 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고 있는가? 물론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게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액공제까지 해 주는 노름판의 개명 비슷한 친절함(?)도 베푼다.

한때 영진위도 이런 친절함을 베푼던 때가 있었다. 지난 2003년 통전망 시스템을 만들면서 가입 극장에게 전송지원금을 보조해 줬던 것인데, 2010년 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영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통전망 가입을 의무화시킴으로서 모든 개평도 친절함도 사라져 버렸다.

다시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전산망 사업자가 보낸 인상 관련 문서는 말 그대로 협의 요청이었다. 아직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이 기술자의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한 번쯤 사정해 보는 것이었다. 물론 타 극장과 비교하여 오오극장이 월간 지불하고 있는 유지 보수 비용이 결코 터무니없이 낮다고 할 수 없어 인상 요청을 거부했지만, 그 원인이 대체 무엇으로부터 왔는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만약 통전망이 중간의 전산망 사업자를 빼고 극장에서 바로 영진위로 직행하는 데이터 전송 체제였다면, 애초에 극장이 다달이 전산망 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유지 보수 비용도 없었을 것이다. 멀티플렉스의 경우 자체 시스템을 통해 전송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월간 운영비 상승 부담은 오롯이 영세 단관 극장만 감당해야 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다.

독립예술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맡아 운영하고 있는 오오극장으로서 지원은 고사하고 뺨 뺨된 기분은 분노 게이지를 참을 수가 없다.

다시 한 번 국가에 묻고 싶다.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 이용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는가? 국가가 부담하는가? 그렇다면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유지 보수 비용은 과연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최태규 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 사무국장, 독립영화전용관 오오극장 운영팀장. 한때 영화를 만들고 싶었으나 독협에서 발뺨할 타 이밍을 잃고 그대로 남은 비운의 케이스. 언젠가는 창작자로 돌아갈 것이다.

최아름의 <영아>

처음 본 순간 사랑에 빠진 얼굴

영아 부르면 가만 눈을 맞추는 얼굴을 종종 생각한다. 고요한 눈동자와 웃음기가 오목하게 고인 입매, 침착하게 빛나는 뺨 같은 것들. 그 뒤에는 영아의 다른 면면을 생각한다. 다정하고도 끝이 매운 손과, 오돌토돌한 음색과 습한 비음과, 그것들이 합쳐져 만드는 목소리의 떨림 같은 것들.

나는 영아를 되게 좋아한다.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다. 어떤 얼굴은 보는 순간 좋아지기도 한다. 영아가 그랬다. 영아가 나타났을 때, 화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왔다기보다는 어딘가에서 스르륵 등장해 버렸을 때, 동실 떠오른 얼굴은 그저 본디 말간 피부 때문만이 아니라 어딘지 평평하고 아스라하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시야는 영아의 얼굴에서 그치는 대신 스크린에 펼쳐진 장면으로 확 넓어졌다. 어롱어롱한 느낌은 영아라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 아니고 영아가 등장하는 장면 자체, 그러니까 <영아>라는 영화에 대한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했다. 어떤 얼굴이 보는 순간 좋아지는 것처럼, 어떤 장면 또한 보는 순간 좋아지기도 한다고. 영화에서 두 순간이 반드시 함께이리라는 법은 없지만, 적어도 <영아>에선 둘이 나란히 있는 것 같았다.

영아를 좋아하는 이유를 더 대러니까 마음이 어려워졌다. 영아는 유달리 옛된 것도 아니고 특출히 순진무구한 것도 아닌데 생각해 보면 그건 당연한 거다. 영아는 무슨, 풋풋했던 첫 사랑이나 가련한 누나 내지는 여동생의 현현 같은 게 아니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은 영아가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아다. 나는 '우리 모두의 소녀' 같은 표현도 싫다. 그건 너무 손쉽고 알궂다. 영아가 떠올리게 하는 사람도 영아도 한 명의 사람이다. 같이 있던 때를 떠올리고 또 묘사하고, 이름을 기억하면서 계속 부르는 것이 더 좋다. <영아>에서는 영아에게도 영아라는 이름이 있고, 완무에게도 완무라는 이름이 있다. 이름을 얼버무리지 않고 구체적인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영아가 영아기 때문에 난 <영아>를 더 좋아한다.

좋아서 계속 보고픈 마음과 좋아서 좀처럼 들춰 보기 힘든 마음이 있다. 영아를 좋아하는 마음은 뒤의 것이다. 영아와의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을 결심하기까지 몇 년씩이나 걸렸다. 그러니까 나는 영아와 친하다기보다는 데면데면한 상태로 짝사랑을 한 거다. 몇 번 보지 않아도 오랫동안 떠올릴 수



있는 건 첫눈에 반했기 때문이다. <영아>를 처음 볼 적 바쁘게 웅성거리던 극장의 공기가 영아를 내 첫사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에 둔감했던 내게는 <영아>를 겪은 것이 꽤 심상찮은 일이었다. 영아의 얼굴에 머무르던 시선이 화면으로 옮겨 갔을 때, 잠자코 있던 스크린을 찢는, 밝히는, 이지러뜨리는, 진동하게 만드는 초자연적인 힘이 영화에 있다고 믿게 되었다. 그 이후로 다른 영화에서 몇 번 더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다. 경험은 예상외로 많은 것이지만 경험의 순간만큼은 항상 예사롭지 않은 것이지만 경험의 순간만큼은 항상 예사롭이 문지방을 넘고 눈꺼풀에 찰싹 달라붙어 버리곤 한다는 것도 좋았다. 그리고 그 좋음이 지나면 반드시 <영아>를 생각하게 됐다. 소중한 내 첫 좋음. 영아.

김송요 머리를 감거나 설거지를 할 때 좋은 말을 잘 생각해 두었다가 손을 수건에 닦는 순간 잊어버려서 멋있는 자기소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떠돌기 좋아하는데 영화도 좋아해서 비극적일 뻔했지만 영화제에선 셋 다 좋아해도 되니까 관참아졌습니다. 서울독립영화제 홍보팀으로 일합니다.